

비즈 프리즘 | 삼성전자·LG전자, 1분기 스마트폰 부진…반전카드는?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신기술 선점’이 기회

삼성 IM 영업이익 전년 대비 40% ↓
출시 연기 ‘갤럭시 폴드’ 재경비 주력
LG전자는 첫 5G폰 ‘V50 씽큐’ 출시

한국 스마트폰이 1분기에 부진했다. 직전 분기인 전년 4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글로벌 시장 수요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진 탓이다.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 체질을 바꾸는 한편 5G와 폴더블 등 새 영역 개척에도 나섰다.

삼성전자 IM부문은 1분기 매출 27조 2000억 원, 영업이익 2조2700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50% 증

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 감소한 것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S10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고사양화 트렌드와 플래그십 모델 마케팅, 중저가 라인업 교체 비용 등으로 수익 개선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LG전자의 MC사업본부는 1분기 매출 1조5104억 원, 영업손실 2035억 원을 기록했다. 16분기 연속 적자다. 그나마 손실이 전분기와 비교해 36% 줄었다는 게 위안거리다.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폰 사업 전망은 다가오는 2분기와 올 하반기에도 그리 밝지 않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 정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5G 등 새 시장이 열리면서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



LG전자 ‘V50 씽큐’

성전자와 LG전자도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를 준비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시리즈의 견조한 판매를 유지하면서 A80 등 새 기술을 적용한 제품 판매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중저가 라인업도 재경비 해 전 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5G와 폴더블 등 혁신 제품 판매를 확대해 프리

미엄 리더십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화면불량 논란으로 출시가 연기된 갤럭시폴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삼성전자 ‘퍼스트 무브’ 전략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LG전자는 이달 중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해 새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화와 모듈화 전략에 기반한 원가 효율화를 실시해 수익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 ‘LG 하이퐁 캠퍼스’로 재배치한다는 발표도 했다. 하이퐁 공장은 프리미엄 제품을 포함하는 풀라인업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며, 올 하반기 연간 생산능력이 1100만대로 늘어난다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김명근 기자 diony@donga.com



SK텔레콤은 5G 전용요금제 ‘5GX 플랜’ 가입 고객에게 추가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5월엔 ‘5G’하세요

SKT, 추가 데이터에 경품까지 뽐냄
LGU+, 가족 3명 ‘반값 할인’ 이벤트

이동통신기업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G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SK텔레콤은 5G 전용요금제 ‘5GX 플랜’ 가입 고객에 추가 데이터 혜택을 준다.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4월 가입 고객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5GX 스탠다드’ 요금 고객은 기본데이터 150GB에 추가로 50GB를 더 받는다. 최저요금제 ‘슬림’도 기본데이터 8GB에 1GB를 추가 제공한다. ‘5GX 플래티넘’과 ‘5GX 프리미엄’ 가입 고객은 6월 30일까지 가입하면 속도제한 없는 완전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5월 5GX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스 공기청정기와 삼성 그랑데 건조기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U+ 5G 프리미엄 가족 할인’을 선보였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해당 기간 가입하는 고객들은 2021년 6월 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족 3명이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면 월 9만5000원의 요금제를 3명 모두 반값인 4만7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가족 전체 할인 총액은 월 14만2500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하나금융 vs 우리금융…“롯데카드 잡아라”

우리은행, 롯데카드 인수전 참가
금융지주사 3위 놓고 맞대결 구도

롯데카드 인수전에 우리은행이 뛰어 들면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라는 금융지주사간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롯데카드 인수전은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한화그룹이 막판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하나금융이 무난히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핵심계열사인 우리은행이라는 강력한 복병이 나타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롯데카드 인수본입찰에 하나금융,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이하 MBK), 한앤컴퍼니가 참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최근 MBK 컨소시엄에 깜짝 참여했다.

MBK와 우리은행이 각각 롯데카드 지분 60%와 2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롯데지주가 유지하는 구도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지속적 사업보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기는 속성이 강해 장기적으로 우리은행

이 MBK 지분까지 추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참에는 1월 출범한 지주사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부문을 인수·합병(M&A)으로 강화하려는 우리금융의 승부수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으로 출자 한도 규제에서 벗어나 7조 원 이상의 출자 여력을 확보했다. 이를 발판으로 4월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 주 식매매계약을 맺었고, 부동산신탁회사인 국제자산신탁과도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금융지주사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하나금융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주사 출범 이후 첫 분기인 1분기 실적에서 우리금융은 당기순이익 5686억 원으로, 5560억 원인 하나금융을 소폭 앞섰다. 지난해 1539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롯데카드의 지분을 수익이 더해지면 금융지주사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롯데지주는 이르면 이번 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20m 울트라 메가폰과 놀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1일부터 19일까지 월드컵 잔디광장에서 '핑크퐁 월드페스타'를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20m 높이의 초대형 핑크퐁 조형물인 '울트라 메가폰'과 30개의 다양한 핑크퐁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와 핑크퐁이 함께 제작한 '월드타워송'도 1일 공개됐다. '핑크퐁 월드페스타'에서는 어린이날 연휴에 뮤지컬 라이브쇼, 핑크퐁 싱어롱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대건 기자 oldfield@donga.com·사진제공 | 롯데물산

힘찬병원, 러시아에 ‘사할린 힘찬병원’ 개원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4월 29일 한국병원 최초로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사할린 힘찬병원’을 개원했다. 총 660㎡ 규모로 1층은 비수술 주사치료실, 2층은 원무과, 외래진료실, 재활·물리치료실로 사용된다.

힘찬병원은 관절·척추 수술 특성상 사후 재활의 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러시아 현지에 직접 진출해 관절·척추 통증클리닉과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척

추 비수술 주사치료나 물리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현지에서 치료하고,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국내 힘찬병원으로 인계하는 투 트랙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특히 사할린 힘찬병원은 한국 의사와 러시아 의사, 물리치료사가 매주 2회 화상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석한 물리치료사가 진료 후 물리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운용 기자 sadzoo@donga.com



교육·퍼즐

에듀월

현장 전문가 노하우 제공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취업 성공법 “실무 미리 준비해야…”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오는 7월13일 토요일에 실시될 제22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주택관리사 수험생들은 절대평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제16회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한 박철규 관리소장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처음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습니다”라며 “자격증 취득 이후에 절대평가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라고 충고했다. 또한 “저는 수험생 때 회계이론을 배웠지만 실무에서 쓰이는 X-ERP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에듀월에서 몇 주 동안 교육받은 것이 실무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취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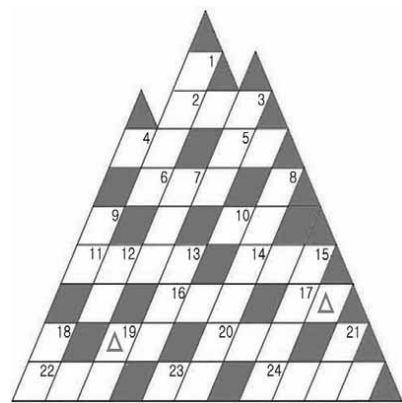


후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에듀월의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에듀월 주택관리사 합격생 출신의 현장 전문가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시설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 주택관리사 실무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강을 제공한다. 이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부터 자기소개서 항목까지 취업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보 주택관리사가 취업과 실무 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정보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에듀월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이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화산의 분화구에 물이 괴여 생긴 호수. 04.딸의 남편. 05.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살면서 그 집의 일을 도와줌. 또는 그런 사람. 06.문서·계산서·자료 등을 복사하는 데 쓰는 기기(機器). 10.술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 11.몹시 방

정맞은 행동. 14.알이 들어 통통한 생선. 16.조선 태종 때,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백성이 원통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17.만나는 일. 19.깊은 산속. 20.전파나 음파 등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22.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23.높은 어른을 찾아가 뵈. 24.머리털이 쑥대강이처럼 마구 흐트러짐. 또는 그런 머리털. “으으~발”

■ 세로 열쇠

01.재화(災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됨. 03.봄철에 물오른 벼들 가지를 비틀어 뽑은 통깨질이나 짬막한 밀짚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 07.사랑에 있는 방. 또는 사랑으로 쓰는 방. 08.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09.몹시 미워함. 12.뛰어

난 학식이나 재능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영리하고 총기 있게 생긴 골격. 15.기이하고 빼어난 산. 18.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끌어냄. 19.산과 내. 21.설없이 하는 일.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

